

## 주택디자인 향상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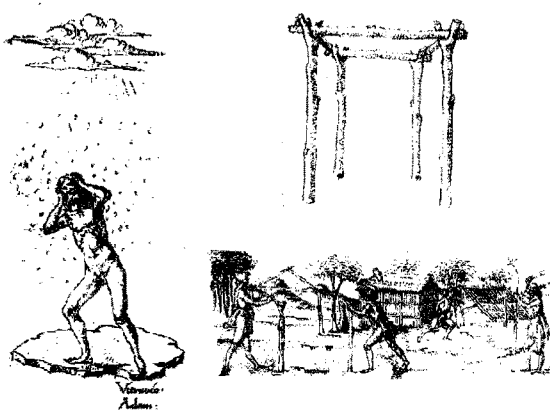
## 좋은 주택디자인은 무엇인가?



강인호  
(한남대학교 건축학부 교수)

## 1. 원시 오두막과 주택의 본질적 속성

르네상스 시기에 활동하였던 필라레테(Filarete)는 원시 인간이 처음에 집을 짓는 이유와 과정을 설명하고 있다. 그에 따르면 건축의 본질이란 원래 '필요(necessitas)'에 의해 창출되는 것인데, 천상에서 추방당한 아담은 비와 햇빛을 피하기 위하여 자신의 팔로 몸을 가리는 일을 시작한다. 그러나 자신의 팔로 가리는 방식으로는 비와 강한 햇빛을 가리기에 충분치 않았으므로 원시 오두막을 짓게 되는데 이로써 아담은 최초의 원시 오두막의 건설자가 된다. 그가 만들어낸 원시 오두막의 골격은 주거의 기본조건을 의미한다. 그리고 이들이 주택을 짓는 모습을 그려 보았다.



▲ 원시오두막의 창건자로서의 아담과 건설과정  
(Hanno-Walter Kruff, A History of Architectural Theory, Princeton Architectural Press, 1994)

이 그림에서 시사하는 바는 자연 상태에 던져진 인간은 알몸 그대로의 상태로 생존하기 어렵기 때문에 짓는 일을 한다는 점이다. 곧 집이란 본질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자연환경에 부가하여 인간의 거주조건에 적합하도록 그 상태를 교정하기 위한 '인공적 환경'을 만드는 일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집을 짓는 행위는 본질적으로 자연 환경에 인공적으로 개입하는 일이다. 자연환경에 인공적으로 개입한다는 것은 본래 주어진 자연환경을 인간 생활에 적합하도록 지원 장치를 마련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 자연환경을 대체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짓는 행위는 인간의 거주환경을 생각할 때 그 자체가 본질이라 할 수는 없다. 즉 인위적 장치로서의 집이란 인간의 생활을 자연환경과 분리하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 아니라 자연환경에 놓여진 인간의 생활을 보조적으로 지원하는 장치로서의 속성을 갖는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좋은 집이란 건물 자체 만이 아니라 건물과 주변 환경이 하나로 통합된 총체적 환경을 만들어 내는 것을 의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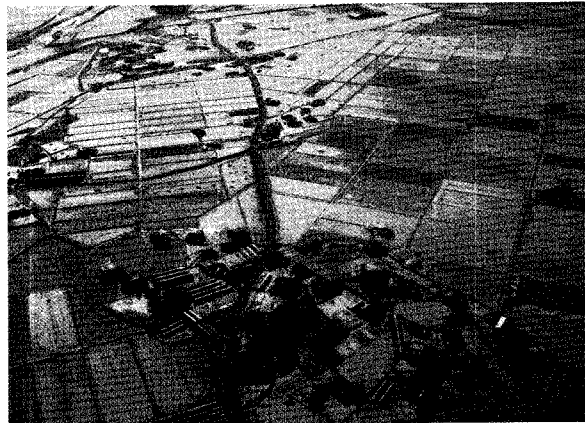
두 번째 시사는 그림에 있는 건축물의 뼈대 구조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주택은 구조적으로 강건해야 한다는 점이다. 필라레테는 아담이 손과 팔 만으로는 햇빛과 비를 피하기 어려워 집을 짓기 시작하였다고 설명하면서 원시 오두막의 원형으로 기둥과 보로만 구성된 구조체를 그려 보이고

## 주택디자인 향상방향

있다. 이는 필라레떼가 집을 구성하는 본질적 요소의 출발은 구조적 속성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즉 그림에서 기둥과 보를 그려 보이고 있는 것과 같이 건축물이란 기본적으로 구조적 속성에 충실해야 하고, 안전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이를 확대한다면 주택의 물리적 성능 자체가 거주생활에 필요한 기본적인 조건에 부합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구조적으로 안전해야 하며, 적절한 거주환경 성능을 발휘해서 추위와 더위를 조절할 수 있어야 하고, 충분한 일조와 통풍이 가능해서 위생적이고 건강에 위해가 없는 거주환경을 제공해 줄 수 있어야 한다.

세 번째 시사는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집을 짓고 있는 모습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짓는다는 것은 독립적이고 개별적인 행위가 아니라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작업하고 함께 만들어 나가는 협력과정, 공동화 과정이라는 것이다. 이는 공동체를 전제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이다. 즉 집이란 물리적인 환경으로서의 의미 뿐 아니라 거주하는 사람들의 관계와 그로부터 비롯하는 공동체 의식을 전제로 하여 완성되는 것이지 물리적 구조물로서만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러한 점을 생각하면 집의 본질적 속성은 사람과의 관계를 포함하는 보다 넓은 시스템으로 확장되어서 인간-환경 복합체(man-environment system)를 형성한다.

네 번째 시사는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집들이 한정된 장소에 복수로 집합하고 있다는 점이다. 즉 개별 주택 하나 하나가 진정으로 집으로서의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각각의 집들이 군집하여 하나의 복합체, 집합적 거주환경을 만들어 내야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이를 다른 말로 한다면 주택은 개별적으로 존재하지 않으며 상호 관계를 형성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농촌지역의 주택이 배치되는 형식을 보면 이를 잘 알 수 있다. 농촌 지역에서는 자신의 경작지에 부속하여 별도의 주택을 짓기보다 일정 지역에 밀집하여 마을을 형성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리고 들이 넓는데도 불구하고 마을의 주택들이 상당히 조밀한 구성을 하는 경우도 흔하게 관찰된다. 도시지역에서는 토지가



▲ 주택들이 각각의 경작지에 부속하여 산포하지 않고 한 곳에 밀집하여 있다. 주택 상호간의 공간적 관계가 발생하고, 이것이 주택의 본질적 속성을 구성한다.

부족하여 어쩔 수 없이 조밀한 구성을 한다고 설명할 수 있지만 농촌지역에서는 그러한 설명이 설득력을 가질 수가 없다. 한정된 공간에 주택이 모여서 밀집하는 현상은 토지의 부족문제 때문이 아니라 주택의 본질적 속성에 해당하는 것이다. 한정된 장소에 주택이 밀집하게 되면 공간적 상호관계가 발생한다.

## 2. 주택의 본질적 속성과 좋은 주택의 의미

### ■ 통합적 공간환경으로서의 주택

좋은 주택이란 주택이 지녀야 할 본질적 속성에 충실한 주택이라는데 이론의 여지가 없을 것이다. 속성이란 주택이 갖는 구체적 물리적 특성보다 그것에 내재하는 성질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보다 개념적이고 상위적 차원에서의 논의가 필요하다. 앞에서 필라레떼의 원시 오두막으로부터 유추한 주택의 본질적 속성들을 살펴 보았지만 이들을 상위적으로 포괄한다면 ‘관계’속에 존재하는 것이라 정의할 수 있다. 자연환경과 주택이 맺는 관계, 거주하는 사람들과 주택이 맺는 관계, 주택들 상호간에 형성되는 공간적 관계 등 날개의 주택만으로는 정의될 수 없는 통합된 시스템 속에 놓여 있는 특성을 갖는다. 주택이 날개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은 주택의 개별성보다는 이에 대응하는 개념으로 공공성 내지는 공동성의 문제가 본질적 특성의 중요한 전제가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개체들간의 상호관계

## 주택디자인 향상방향

란 필연적으로 이들 상호간에 공유하는 공공성을 유발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개념적으로 본다면 좋은 주택이란 공공적 특성,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한다면 통합적 환경 속에서 정의되는 주택, 또는 통합적 공간환경에 기여하는 방식으로서의 특성과 깊은 연관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물론 좋은 주택의 특성을 규정하는 속성들이란 이외에도 상당히 다양한 관점에서 논의할 수 있다. 구조적으로 견고한 성능을 지니고 환경적으로 실내 거주환경을 적절하게 유지하며, 친환경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어서 거주자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 유익을 제공하고, 합리적인 유지관리가 가능한 특성 등 다양한 논의가 가능할 것이다. 모두 좋은 주택의 조건으로 소홀히 다룰 수 없는 중요한 조건들임에 틀림이 없다. 그러나 근대 이후 주택을 다루어 온 경험적 토대 위에서 본다면 주택을 지나치게 독립된 개체로 다루거나 맥락적 환경과 유리된 개별 건물로서의 주택 개념에 지나치게 기울어져 있었다는 점, 그로 인하여 실제 인간생활이 가지고 있는 비분절성, 주변환경과의 연속성 등에 대한 상대적 소홀함 등을 생각한다면 현실적으로 논의가 부족하고, 실제로 실행이 잘 안되는, 그러나 매우 중요하게 다룰 필요가 있는 공공성의 문제에 논의를 집중하는 것도 필요한 일이다.

#### ■ 주택디자인의 정의

좋은 주택의 의미를 공유하는 것은 개념적 수준에서 가능한 일일 수 있지만 그것에 접근하는 방법을 규정하고, 구체적 실체를 정의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일이다. 좋은 주택의 본질적 속성을 충족하는 다양한 방법이 있을 수 있고, 그 방법이 곧 디자인 전략이라 할 수 있다. 주택을 디자인 한다는 것은 전략적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을 강구하는 일체의 행위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주택 디자인'이란 좋은 주택을 만들어 가기 위한 전략적 선택을 의미한다.

2007년 말에 통과되어 곧 시행을 앞두고 있는 건축기본법에서는 건축디자인을 “품격과 품질이 우수한 건축물과

공간환경의 조성으로 건축의 공공성을 실현하기 위하여 건축물과 공간환경을 기획·설계하고 개선하는 행위를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이 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건축 디자인은 공공성의 실현이라는 목표를 전제하고 있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일체의 행위를 포괄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앞에서 필라레테의 원시 오두막에서 유추한 주택의 본질적 속성을 ‘공공성’이라는 개념으로 포괄할 수 있다고 한 위의 논의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이 법에서 정의하는 건축디자인의 대상은 건축물 뿐 아니라 이를 둘러싼 공간환경을 포함하여 서술하고 있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건축기본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관련 용어들의 조금 더 살펴보자. 이 법에서는 건축물과 공간환경을 정의하고 있는데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로 정의하고, 공간환경은 ‘건축물이 이루는 공간구조·공공공간 및 경관’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공공공간은 ‘가로·공원·광장 등의 공간과 그 안에 부속되어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물’로 정의하고 있다. 건축 디자인을 주택 디자인으로 좁혀서 생각해보면 통합환경으로서의 주택, 개별적인 객체로서 독립하지 않는 연속적 환경 속에서의 주택이라는 개념과 상통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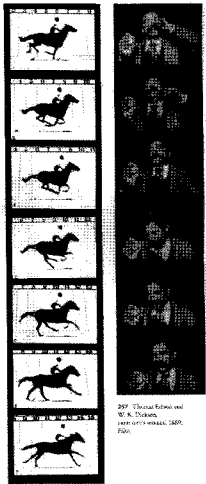
#### ■ 비분절적 생활행위와 주택

주택을 통합적 환경 속에 존재하는 공간 시스템으로 정의할 필요가 있다는 것은 공간속에서 이루어지는 행위체계, 공간에 대한 인지특성과 관련이 있다. 즉 거주 환경으로서의 주택이란 그 속에서 이루어지는 행위특성 내지는 공간인지 특성과의 정합성이 중요한 개념구성의 시발점이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 문제에 대한 논의는 근대건축에서의 공간, 인간행위의 해석과 연계되어 있다. 근대적 공간개념이나 시간개념에서 나타나는 공통적 특성은 분절성이다. 연속적인 시간을 단속적인 단위로 분절하고, 시간단위로 분절된 매듭 속으로 행위들이 분절되어 들어간다.

3) 강부성, 강인호, 박인석, 이규인, 최정민 역, 淺見泰司口, 주거환경 평가방법과 이론, 시공문화사, 2003

## 주택디자인 향상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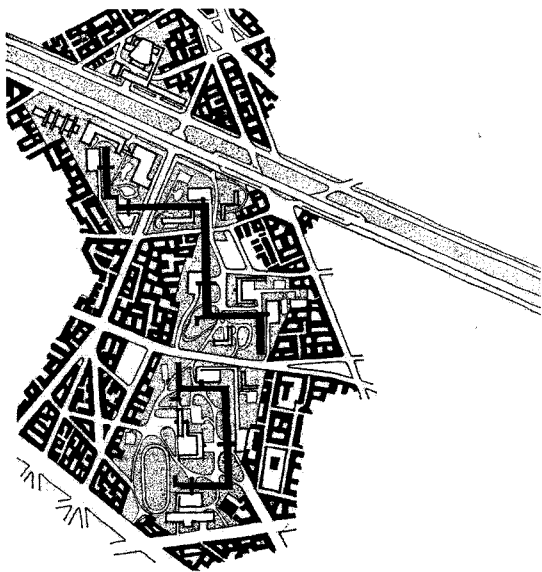


▲ 행위의 분절 (이진경, 근대적 주거공간의 탄생)

그러나 우리의 일상생활이 기능적 행위들로 명확하게 분절할 수 있는지, 기능별로 유목화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사실 대단히 회의적이다. 주거공간을 디자인하면서 전제하는 인간의 행위모델이나 공간인지 특성은 별개의 것으로 구분되지 않는, 통합적이고 연속적인 성격을 갖는 것이 실제임에도 불구하고 근대주거공간의 디자인에서 전제한 인간의 행위는 기능적으로 유목화되기를 반복했다.

객체로서의 주거는 외부공간과 관계를 맺기 보다는 토지에 얽혀진 건축물로 다루어졌고, 도시공간과 연계되는 통합적 공간으로서 인정되지 않았다.

왼쪽 그림은 빛나는 도시를 변형하여 파리의 슬럼지역인 Ilot Insalubre no.6 구역을 재개발하는 계획을 르 코르뷔제가 제안한 것이다.<sup>1)</sup>



▲ ILOT INSALUBRE No.6 Paris, 1938

검정색으로 표현되어 있는 중심 아파트 건물은 기둥으로 들어 올려진 것으로 대략 120피트 - 약 18층 - 높이를 가지고 있다. 건물 하부는 보행이든 일반 교통이든 방해받지 않고 통과하게 되어 있어서 지상공간은 자유로운 움직임이 이루어진다. 흰색으로 표현되어 있는 저층 건물은 차고, 가게, 유흥장 및 다양한 서비스 시설들이다. 조밀한 건폐면적을 보여주고 있는 현존 건물과의 대비가 명확하다.

이들 건물을 피로티로 들어 올려져서 외부공간에서의 활동은 건물에 의해 방해받지 않는다. 외부공간의 동선이 자유롭게 흐를 수 있고, 연속해 나갈 수 있다. 그러나 우리의 일상생활이 주거공간 내부와 외부에서의 생활을 명확하게 구분하고 서로 유기적인 연관 없이 분절적인 행위들이라면 상관없지만 내외부공간에서의 연속적인 생활행위가 이루어진다면 이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응답할 수 없다.

통상 우리의 일상생활은 내외부공간에서의 유기적 연결이 이루어지면서 내부공간과 외부공간을 교차하여 사용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그러나 이러한 생활행위는 주거공간의 구성이 이를 막기 때문이지 생활의 특성 자체가 그렇게 분절적인 속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은 아니다. 오히려 보다 개방적이고 상호 연계된 공간 시스템을 제공하고 이들이 실제 모습의 일상생활행위의 특성을 수용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따라서 좋은 주택 디자인을 위해서는 생활행위에 대한 실제적 해석, 폐쇄적이고 내향적인 공간에서 개방적인 공간으로, 생활에 대한 정형화된 정의에서 일상생활에 대한 실천적 해석과 수용 등을 진지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 새로운 주거공간의 해석과 관련하여 좋은 아파트를 만들어 내는데 중요하게 검토해야 할 몇 가지를 따져 본다면 다음과 같은 것들을 들 수 있다.

### 1) 도시적 개방성과 생활의 다양성

도시를 개방시스템이며 능촌적인 정주 커뮤니티 모델 을 이식하는 방법으로 도시 내에 한정된 공간단위의 주거

1) (urban pattern - city planning and design, p.363. Arthur B. Gallion and Simon Eisner, D.Van Nostrand Company, Inc, 1963)

## 주택디자인 향상방향

공간을 만들어 낸다는 것이 한계를 가진다는 지적은 이미 1960년대 이후 꾸준히 지적되어 왔다. 그러나 현실에서 진행되는 주거공간은 이와는 무관하게 자족적이고 내향적인 생활양식, 이웃관계 등을 전제하는 경향이 지속되고 있다. 이미 사회는 개방적인 시스템으로 재편되어 있고, 공간적으로 한정된 커뮤니티 시스템을 가지고 있지 않으며, 근본적으로 도시 자체가 농촌 마을과 같이 한정된 공간단위를 전제로 하는 이웃관계가 형성되지 않는 사회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이에 대응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

## 2) 일상생활의 비분절성 - 다양한 선택성의 증대

우리의 생활은 대단히 비분절적이고 다양한 행위의 복합으로 이루어진다. 지나치게 기능공간을 배치하고 행위장소의 일대일 대응을 요구하는 것은 현실의 생활과 공간의 대응을 경직된 관계로 몰아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에서 각별히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우리가 행하는 각종 일상적인 생활행동 중에는 특정한 기능적 행위들도 있지만 그 과정에서 파생되는 다양한 우발적 행위들이 존재하며 비 예측적인 행동들이 다수 포함된다. 우연적 행위는 행위의 특성에 대응하는 장소에 한정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좋은 주거공간은 삶의 경험을 풍부하게 만들어 주는 공간이어야 한다.

## 3) 도시, 지역의 맥락과 주거공간의 대응

주택은 홀로 존재할 수 없다. 이것은 도시공간 속에 존재하고 있으며 도시공간 속에 존재한다는 것은 이것이 도시, 지역의 물리적, 공간적 시스템 속에 편입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맥락적 환경에 대응하고 이들 속에 유연하게 편입되지 못하면 도시공간 시스템에서 이들이 갖게 되는 기능이란 이질성, 분절성 등 부정적 요소로 작동하게 된다는 것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도시공간은 개별 건축물의 특출한 디자인으로 만들어지는 힘보다는 이들이 연합하여 만들어 내는 집합의 논리, 집합의 아름다움으로 만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이다.

맥락적 환경을 강조하는 이유는 이러한 점에서 개별 건축물, 개별 주거단지의 완결성보다는 조화, 상보적 관계, 전체 속에서의 부분의 역할 등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 4) 공공성과 개별성의 조화

주거공간의 공공성, 개방적 상호관계, 커뮤니티의 적극적인 수용 등을 강조하는 주장들을 보면 상당수가 현재보다 적극적인 주거공간의 개방을 요구한다. 일리가 있는 것은 공공성은 공간의 개방성을 필요로 하는 경우가 일반적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의 이면에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다른 가치, 즉 주거공간의 개별성, 사적 공간으로서의 특성을 함께 고민해야 한다는 점을 간과하기 쉽다. 최근 일부 지역에서 진행되고 있는 담장 허물기 운동과 같은 경우 이와 같은 문제에 세심한 논의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서양주택의 경우에 전면 마당에 담장을 두르는 경우는 거의 없지만 사적인 외부활동은 대부분 뒷마당에서 수용된다. 서양주택의 백야드는 매우 폐쇄적인 공간구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익히 아는 사실이다. 즉 무작정 외부에 대하여 개방적인 구성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따라서 주택이 갖는 사적 공간으로서의 특성과 공공적 관계 증진을 위한 개방적 공간구성의 균형을 d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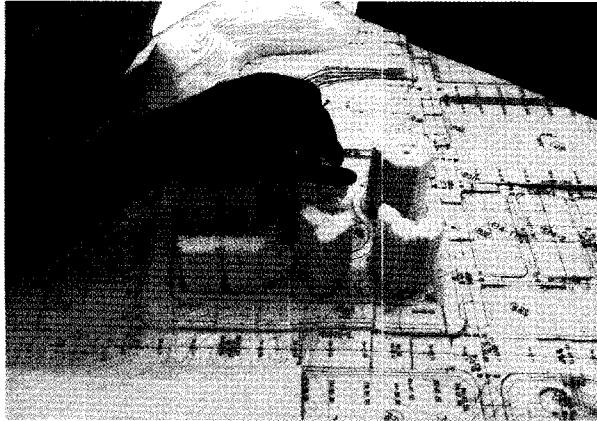
## 3. 좋은 주택 만들기 : 키워드의 모색

## ■ 생활의 기능적 해석과 공간 배치의 유연화

원론적 정의에 의한 단계계획은 상위적으로는 도시공간질서에 부합하면서 하위적으로는 주거동, 동선, 공원, 녹지, 부대시설 등이 통일된 공간질서 속에 놓여서 쾌적한 주거공간을 형성하는 일을 지칭한다. 그러나 다음 사진은 아파트 설계를 하면서 사용하는 아주 일반적인 방법을 보여준다.

좋은 아파트를 실현하는 계획방식으로 우리는 스티로폼 설계방식을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셈이다. 물론 스

## 주택디자인 향상방향



▲ 스티로폼을 이용한 단지설계 방식

티로폼 설계가 열등한 설계방식이거나 반드시 피해야 할 계획방식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동일한 형식의 주거동을 반복배치할 필요성이 높거나 밀도 조건에 부합할 잠재력이 있는 주거동 형식중에서 범용적이고 적절한 단위주거환경을 확보할 수 있는 주거동 유형을 사전 검토하고 이를 구상하고 있는 단지공간구조를 편성하는데 동원할 수 있고, 이는 그리 이상한 접근방식이라 할 수는 없다.

오히려 단지계획을 수행함에 있어서 경계해야 할 점은 우리가 상정하고 있는 생활의 구조, 생활의 모습이 지나치게 기능적이거나 현실에 부합하지 않는 관념적 수준에 놓여 있는 것은 아닌가하는 점이다. 또는 이와 관련하여 관행적인 계획방식에 익숙해져서 흔히 사용하는 판상형, 탑상형 주거동을 적절히 배치하는 것을 단지계획의 본질이라 오해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가 더 경계할 일일 것이다. 만일 이러한 계획방식이 우리의 생활을 균질적인 공간에 수용할 수 있다고 믿는 데에서부터 출발하였다면, 결과적으로 이러한 설계방식이 균질적 공간과 이로 인한 균질적 생활을 만들어 내는 주된 요인으로 작동하게 될 것은 분명한 일이다. 공간이 규격화한다는 것은 생활을 규격화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이는 주거문화의 규격화, 경직성을 가져 오는 원인이 된다.

이러한 계획방식은 주거동 내부공간과 외부공간의 상호관계, 마이크로한 장소성에 대응하는 외부공간과 주거공간의 구성 등 다양한 공간적 특성을 고려하기 보다는 일

률적이고 균질적인 주거동을 반복 사용하여 배열함으로써 다양한 생활의 전개, 장소성의 확보 등 당연히 추구할 필요가 있는 설계상의 이슈를 모두 단순화하고, 이를 표준화, 균질화함으로써 공동주택 단지에 거주하는 거주자들의 생활 자체를 균질화하고 단순화해버리는 결과를 초래하였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즉 거주자의 생활을 단위주거 내부에서의 생활, 옥외공간에서 보행, 휴식, 놀이 등의 기능적 행위구분이 이루어지고 이를 기반으로 각각에 대응하는 공간을 만들어 내는 방식이 일관되게 생활-공간의 대응으로 해석되고 이를 기반으로 단지계획이 이루어져 온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각종 규제나 지침의 설정에서 유연한 공간적 장치들이 가능하도록 융통성있는 계획의 운용이 필요하다. 지자체 입장에서는 좋은 아파트를 건설하도록 하기 위해 행정적, 제도적 장치로서 심의 지침이나 조례의 운용은 그 자체로서 필요한 일이지만 이를 지나치게 세부적으로 규정하거나 규제하는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은 항상 규제가 많다고 해서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 ■ 일상적 생활과 틈새적 공간의 확충

우리가 전제하는 생활의 모습은 실제로 어떤 것인가? 관념으로 구축된 생활의 서술이 아니라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일상생활을 상기한다면, 그리고 그러한 소소한 일상이

주택디자인 향상방향



▲ 다양한 행위의 발생



▲ 집앞에서의 놀이, 위펜브르흐, 네덜란드

건축공간에 담겨야 할 실제적인 생활의 모습들이라면 그것에 대응하는 건축공간의 모습도 상당히 달라져야 할 것이다. 대학교의 경우를 보자. 학생들은 학교에 오는 이유가 공부하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학교에는 교실과 각종 실험실, 도서관, 식당, 학생 휴게실, 교수연구실 등이 준비되어 있다. 그런데 학생들이 학교에 와서 행하는 일상적 생활을 보면 어디에서도 수용되지 않는 행위들이 상당히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공강시간에 잠시 친구들과 종이컵 구겨서 제기차기, 복도를 지나다 언뜻 궁금해서 한쪽 구석에 앉아 사전찾기, 우연히 친구를 만나 계단에 걸터앉아 이야기하기 등 우연적이고 기능적 행위와 행위 사이에서 발생하는, 그래서 어떤 공간에 수용되어야 하는지 애매한 다양한 행위들이 존재한다. 그것이 학교생활의 일상을 구성하는 다양한 행위들의 한 부분이다.

주거공간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다. 주거단지 내에서는 다양한 틈새적 행위들이 발생한다. 아이들은 반드시 놀이터에서만 노는 것이 아니며 주차장에서 인라인 스케이트를 타기도 하고 보도에서 베드민턴을 치기도 한다. 주거동 현관 앞에서 소꿉놀이를 하는 경우도 있고, 이웃집 아주머니 만나서 주거동 현관 앞에 서서 한참동안 이야기를 나누기도 한다. 이러한 일들이 자주 발생할수록, 이러한 일들이 더욱 많아질수록 더 풍부한, 구체적이고 다양한 생활의 경험을 갖게 되고 이는 생활의 질을 높이는 역할을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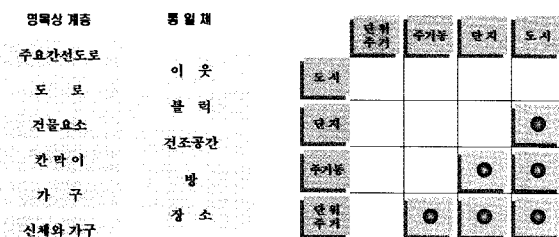


▲ 가로공간의 생활공간화, 암스테르담, 네덜란드

▲ 일상적 생활행위의 발생

■ 공간 상호간의 관계 회복 : 점점공간의 계획

단지공간에서 다양한 생활들이 유발되는 중요한 공간은 기능적으로 정의된 공간단위들보다는 이들이 상호 접촉하는 점점공간들이다. 하브라켄(N.J.Habraken)은 주택을 5가



▲ 하브라켄 : 레벨의 조합

▲ 단지공간의 위계와 조합

## 주택디자인 향상방향

지의 레벨이 종합해야 비로소 온전한 기능을 갖게 되는 것으로 정의한다. 그리고 각각의 레벨은 서로 결합하여야 통일적이고 완결적인 공간을 만들어 낸다고 주장한다.

단지공간을 대상으로 일반적인 공간구조의 위계를 살펴보면 이와 유사한 구조를 갖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도시공간-단지공간-주거동-단위주택으로 이어지는 각각의 공간적 위계를 대상으로 각각의 공간단위들을 완결적이고 자기 충족 방식으로 구성하는 것이 근대건축이 추구 하였던 가치였다면, 이에 반해 중요하게 다룰 필요가 있는 것은 이들 각 공간단위들이 접속하여 만들어 내는 점점공간들이다. 그리고 이들은 반드시 순차적으로 이어지는 점점공간을 형성하는 것만도 아니다.

도시공간과 단지공간이 접속하면서 단지의외곽부와 도시

가도가 개방적이고 적극적으로 만나도록 계획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주거동이 직접 도시공간에 연접하여 가로를 수식할 수도 있고, 직접 출입이 이루어지도록 할 수도 있다. 이들은 상호 유기적으로 접속하면서 다양한공간의 층위를 구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우리의 생활은 위계적이지도, 기능적으로 명확한 분절이 이루어져 있지도 않은, 대단히 유기적이고 복합적인 것이다.

단지계획의 기본적인 과제는 거주자들이 적절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공간구조를 편성하고 이를 적절한 시설배치와 주거동 배치를 통하여 실현하는 것이다. 그러나 보다 세심하게 고려해야 하는 것은 그러한 전체 공간구조 속에서 전개되는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행위들, 이를 수용하는 틈새적 장소들을 마련하는 일에도 눈을 돌려야 한다.



도시공간-단지공간의 점점  
미나미아시아하마, 오사카, 일본



도시공간-주거동의 점점  
플 하우스, 로테르담, 네덜란드



도시공간-단위주택의 점점  
오지마 단지, 동경, 일본



단지공간-단위주택  
비키 신도시, 핀란드

### ▲ 점점 공간의 계획